

만화로 보는 '명상 주역 에세이' 33

글 이원규(미내사 클럽 대표)

그림 한정우(현재 학습만화와 명상만화를 작업중, 행복한 만화를 화두삼아 '호시우보란' 팀으로 작업중)

건괘 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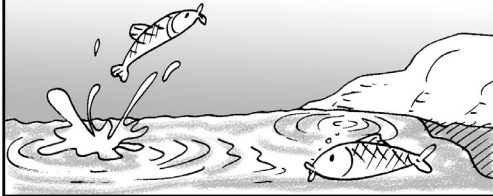
지난 호에서는 마음의 본체가
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음을
발견한 구삼(九三)에 대해
이야기했습니다.

이번 호는 그런 마음의 본체에
뿌리내리고 동시에 마음의 작용을
통해 현상을 일으키려는 구사(九四)에
대해 이야기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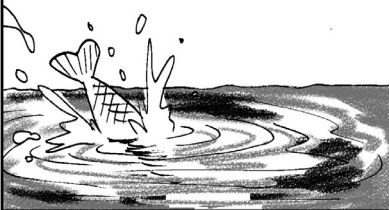
건괘 구사의 효사는 "혹약재연(或躍在淵)
하니 무구(無垢)리라"입니다.



때로 아무런 연고 없는 곳을 향하(無所緣而絕於地)
뛰어 오르는 것이 혹약(或躍)이고, 때로 편안한 연못에
머무는 것이 재연(在淵)입니다.



그런데 이 모든 '움직임이나 머무는 것'에
허물이 없는 것은 그것이 모두 때에 맞기
때문입니다. 그것을 전(傳)에서는 무불시(無不時 :
때에 맞지 않음이 없다)라 하였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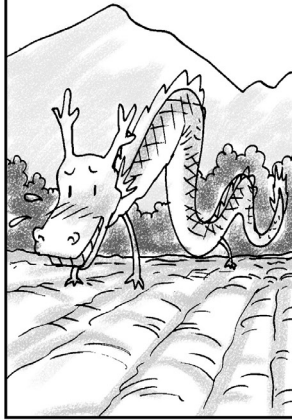
그런데 구사가 가끔 때에 맞아 뛰어오르는 **하지만 아직**
날지는 않습니다. 또 가끔은 하늘길이 열려있고 **맑은길(**
트여있는 편안한 연못에 머물기도 하지만 **침체되어**
무기력하지도 않습니다.



연못에 머무는 것은 날기
위한 준비과정이기
때문입니다.



구이(九二)의 현룡(見龍)처럼
아래로 막혀있는 땅인 밭에 머무는
것(在田)과는 달리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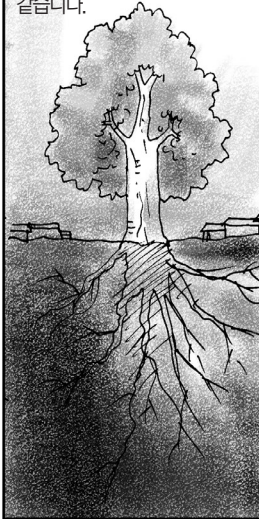
구사(九四)는 한번 날게 되면 무한
창공을 향해 뛰어올 수 있도록, 그
반대편 물속이 심연처럼 깊은
연못에 머문다(在淵)는 특징이
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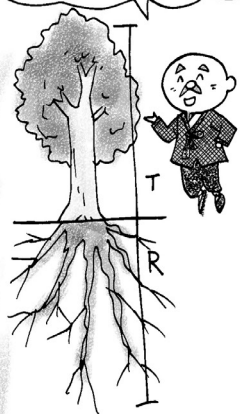
그곳은 전진을 위한 후퇴가 가능한
곳이며, 구사의 악룡(躍龍)이
무한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때 그
뒷받침이 되어주는 곳입니다.
그래서 심연(深淵)이 있는 연못에
머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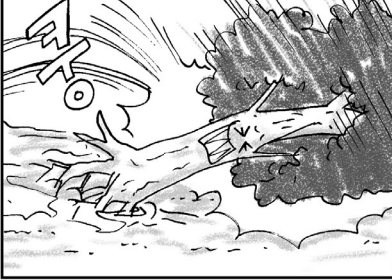
그것은 마치 500년 묵은
느티나무가 지상에 가지를 널리
펼쳐내고 솟아오를 수 있기
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뿌리를
땅속 깊숙이 내리는 것과
같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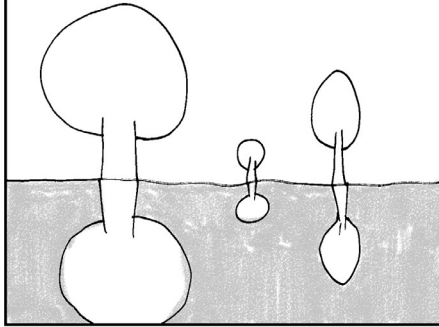
모든 나무들은 지상의 줄기와
지하의 뿌리뻗음이 같은 비율을
지니거나 지하의 뿌리가
더 깊숙이 내려갑니다. 이것을
식물학에서는 T/R비율이라
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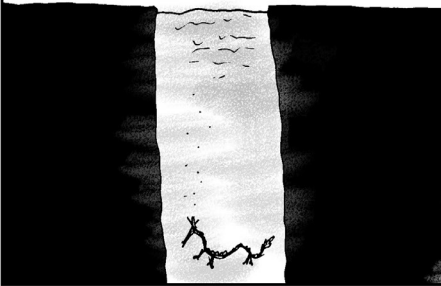
즉 지상줄기(Top)와 지하뿌리(Root)의 비율이지요. 만일 지상의 줄기 및 가지 무게보다 지하의 뿌리가 깊이 뻗어 내려가지 못하면 나무는 지상줄기를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.



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보이는 지상의 모습과 무게에 상응하는 부분을 보이지 않는 지하에 두고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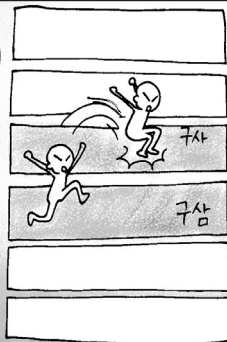
그와 같이 구사인 약룡은 뛰어올라 나를 수 있는 창공과 같은 높이만큼의 깊이를 갖춘 아래로의 심연(深淵)에 머무는 것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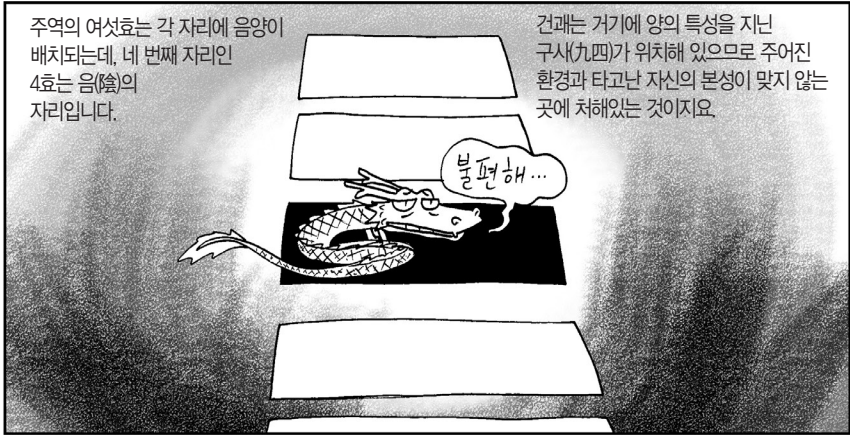
그는 때때로 뛰어오르는 시도를 통해 자신이 나아갈 바를 열고 있으며, 동시에 보이지 않는 심연에서 그 깊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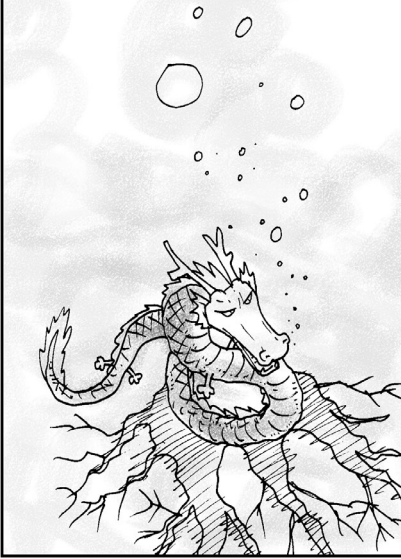
사실 건괘(乾卦)의 구사(九四: 네 번째 양효로 상괘의 가장 아래 위치함)가 처해있는 환경은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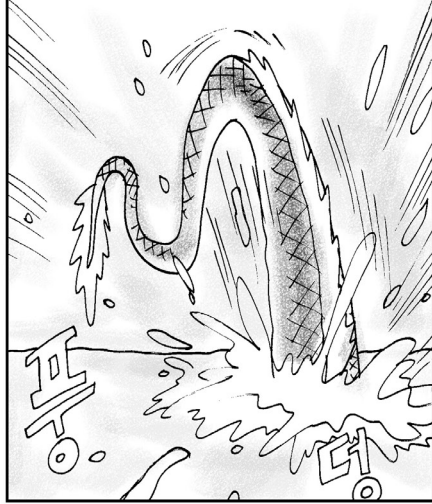
사회적으로 보면 서민층에서 추앙받던 구삼(九三: 세 번째 양효로 하괘의 가장 위에 위치함)이 상괘인 상층부로 진출하여 음(陰)자신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힘으로 가득한 기득권층에 발을 내딛어 개혁하려는 양(陽)과 같습니다.



거기서 그는 현상세계로 드러나기 위해 깊이모를 심오한 세계에 뿌리 박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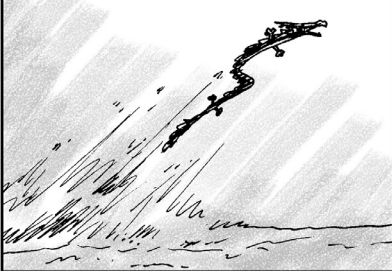
그리고 날기 전에 뛰어봄으로써 스스로를 시험해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마음의 본체에 뿌리를 내리고 동시에 현상세계에 개혁의 작용을 때때로 시도하는 것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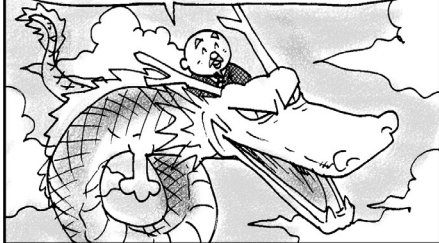
그러나 그 모두가 시의적절합니다. 이것을 공자는 시중(時中)이라 했지요.



때에 맞지 않는 개혁은 모두 허물이 되어 나와 대상을 망가뜨리지만, 때에 맞는 개혁은 한 사회를 도약시킬 발판이 되어줍니다.



'뛰어오르는 시도(或躍)와 깊이 모를 심연에 머무름(在淵),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때에 맞음(無不時), 구사는 이 강한 흐름을 타고 무한창공으로 비상할 시기를 만들어갑니다.



(다음호에 계속)